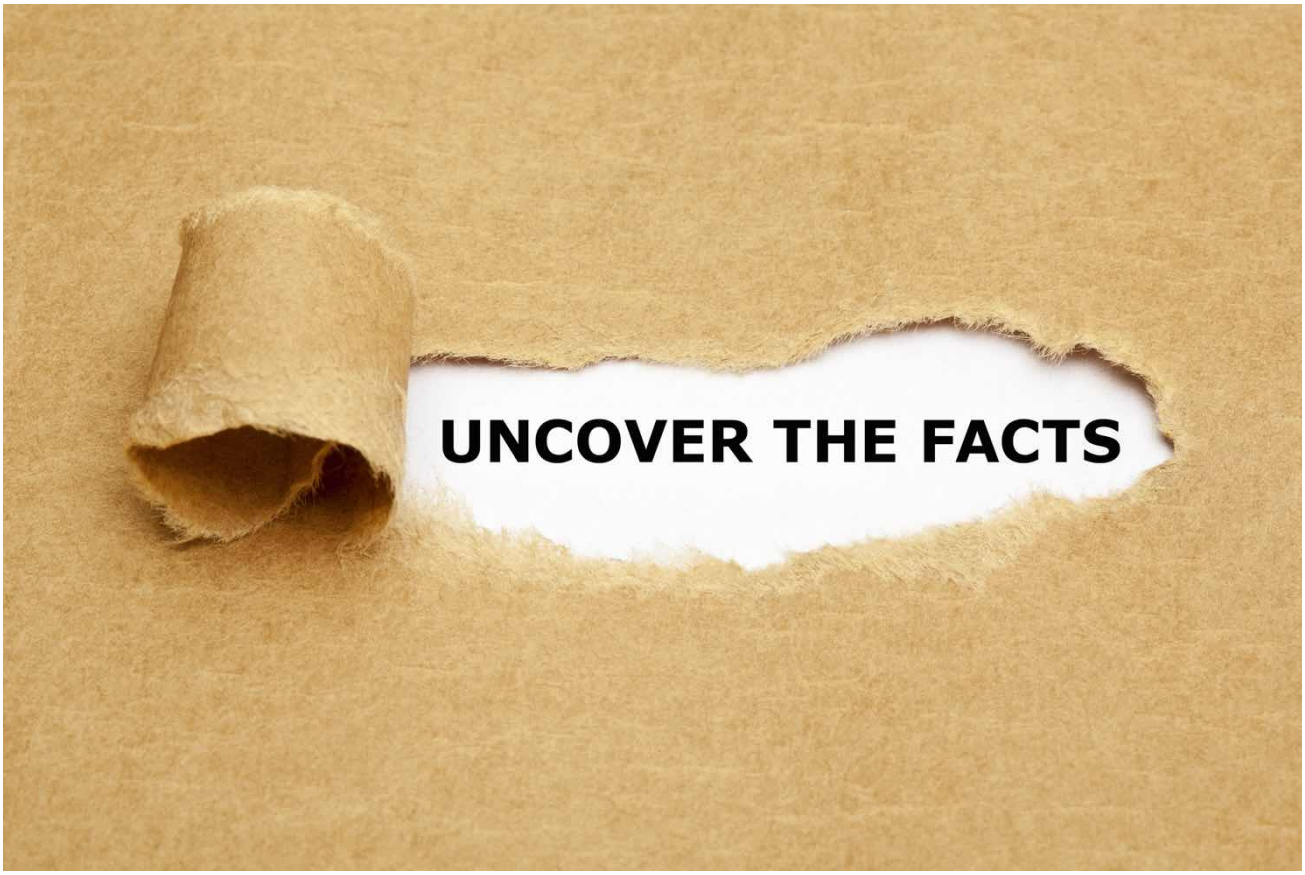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numbers 제 94호



주요 내용

2021. 05.07

1. 이번 주 주제 : [워킹맘(일하는 엄마) 실태]

- 워킹맘의 95%, 자녀 문제 등의 이유로 퇴사 고민한 적 있어!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악인과 착한 사람에 대한 국민 인식]

- 우리 국민 4명 중 3명,우리 사회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다!'

[신혼부부 통계]

- 결혼 5년차 신혼부부 5쌍 중 1쌍, '자녀 없다'

[어버이날 선물]

-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2위,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사회 통계

워킹맘의 95%, 자녀 문제 등의 이유로 퇴사 고민한 적 있어!

5월 가정의 달은 교회마다 설교 메시지가 가정 중심으로 바뀐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풀어서 전국적으로 크리스천들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진다. 확실히 5월은 전국에서 20%나 되는 국민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설교말씀을 통해 가정의 의미,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기이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가정들이 있다. 가정의 달에 특히 가정의 중심인 어머니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중요한데, 정작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에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56%나 된다. 일하는 엄마들이 56%라는 뜻이다. 일하는 엄마들이 많은 우리나라 가정에서 남편들이 가사노동이라도 덜어주면 좋으련만, 남편이 대신하지 못하고 엄마들이 일터에서 돌아와서 가사노동하는 시간이 남편보다 3.5배에 달한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보니, 워킹맘의 95%가 자녀문제 등의 이유로 퇴사를 고민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94호는 가정의 달에 우리 시대 일하는 엄마(워킹맘)들의 남모르는 아픔과 애환을 통계자료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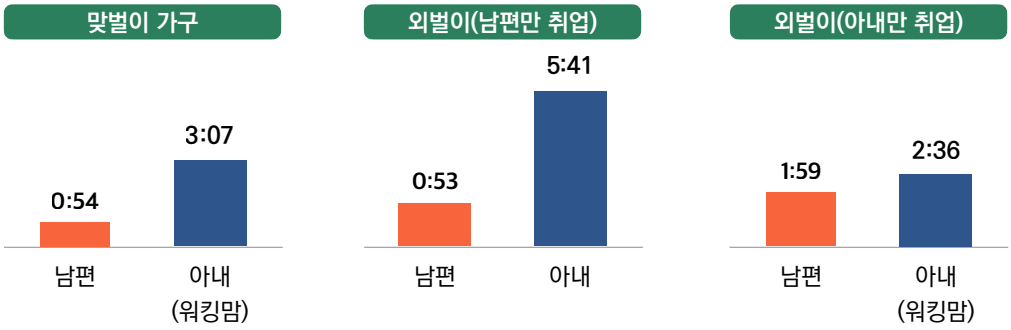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시간,
아내(워킹맘)가 남편의 3.5배 더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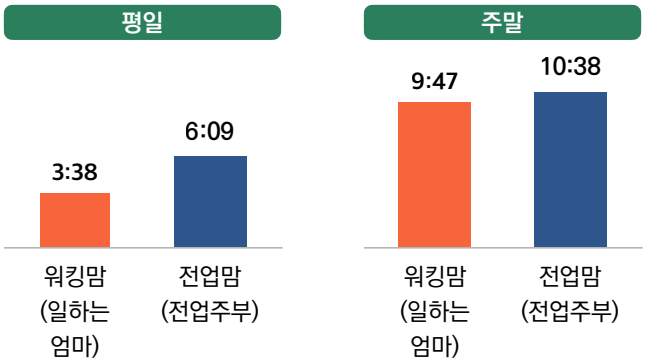
-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의 가사 노동 시간에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하루 가사노동 시간이 남편 54분, 아내 3시간 7분으로,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보다 무려 3.5배나 가사노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부부 중 아내만 취업한 경우도 가사노동 시간이 남편 1시간 59분, 아내 2시간 36분으로 아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워킹맘들의 고달픈 삶을 보여주고 있다.
- 한편, kb금융지주에서 발표한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따르면,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우리나라 엄마들의 평일 하루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워킹맘'(일하는 엄마) 3시간 38분, '전업맘'(전업주부) 6시간 9분으로 '워킹맘'이 '전업맘'에 비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본인을 위한 여유 시간(하루 평균)을 물어본 결과, '전업맘'(전업주부)은 3시간 50분, '워킹맘'(일하는 엄마)은 1시간 51분으로 두 그룹 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부부 간 가사노동 시간 (시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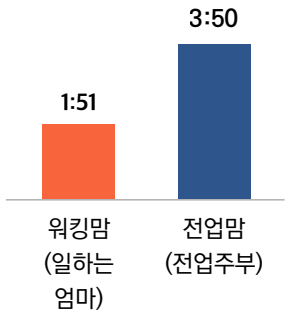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2020.07.30.(전국 12,388가구내 26,091명, 일대일 대면조사, 자기기입방식, 2019.7~12)

[그림]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엄마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평균) (시간: 분)



[그림]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엄마의 하루 여유 시간(평균) (시간: 분)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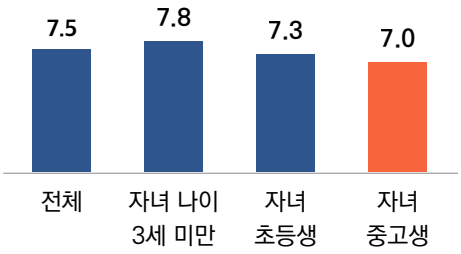
2

워킹맘(일하는 엄마), 직장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
눈치보며 퇴근해야 할 때, 임신/출산으로 고용불안 느낄 때!

-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전국의 워킹맘(일하는 엄마) 942명을 조사한 결과, 워킹맘이 직장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은 '눈치보며 퇴근해야 할 때' 27%, '임신/출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낄 때' 24%, '워킹맘에 대한 편견을 마주할 때'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런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를 측정해 본 결과 워킹맘의 스트레스 지수는 10점 만점(1점 스트레스 전혀없음, 10점 스트레스 매우 심함)에서 평균 7.5점으로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워킹맘의 스트레스가 더 심했다.

[그림] 워킹맘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

[그림] 워킹맘의 스트레스 정도 평가(1점 스트레스 전혀 없음 ~ 10점 스트레스 매우 심함)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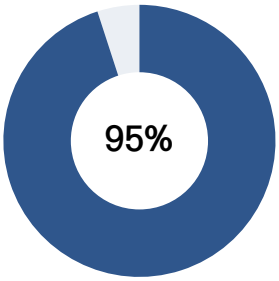
*자료 출처 :벼룩시장구인구직, "일·육아 병행 힘들어.. 워킹맘 10명 중 9명 '퇴사 고민'", 2021.03.19.(전국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 942명 조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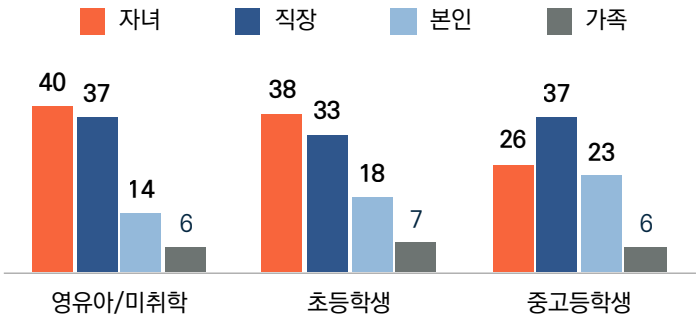
워킹맘의 95%,
자녀 문제 등의 이유로 퇴사 고민한 적 있어!

- 직장생활과 관련, 워킹맘의 95%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케어가 어려울 때와 같은 '자녀 관련 이슈'가 가장 큰데, 주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에서 높았다.

[그림] 직장을 그만두려고 고민한 적 있다 (%)



[그림] 퇴사 고민 이유(자녀 학교급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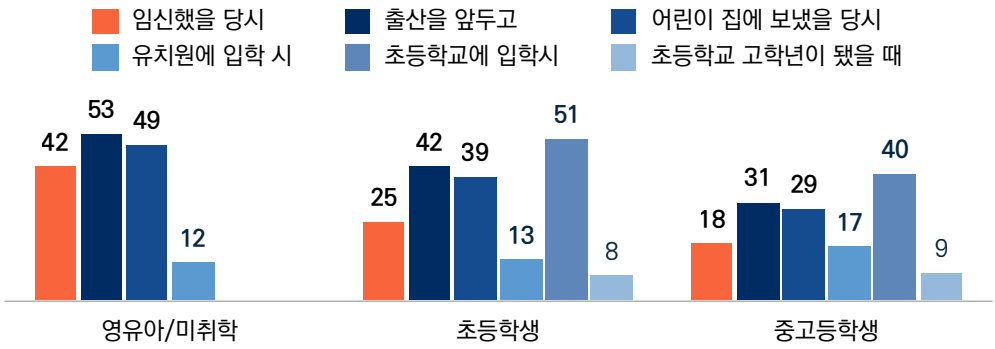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 워킹맘의 퇴사 고민 시점, 출산 때 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

- 워킹맘이 퇴사를 고민했던 시기로는, 자녀가 미취학 아동 이하인 워킹맘은 '자녀출산 때'를, 자녀가 초등학생 이후인 워킹맘은 '초등학교 입학 때'를 가장 고민했던 시기로 응답했다.

[그림] 직장을 그만두려고 가장 고민했던 시기(자녀 학교급별, 상위 6위,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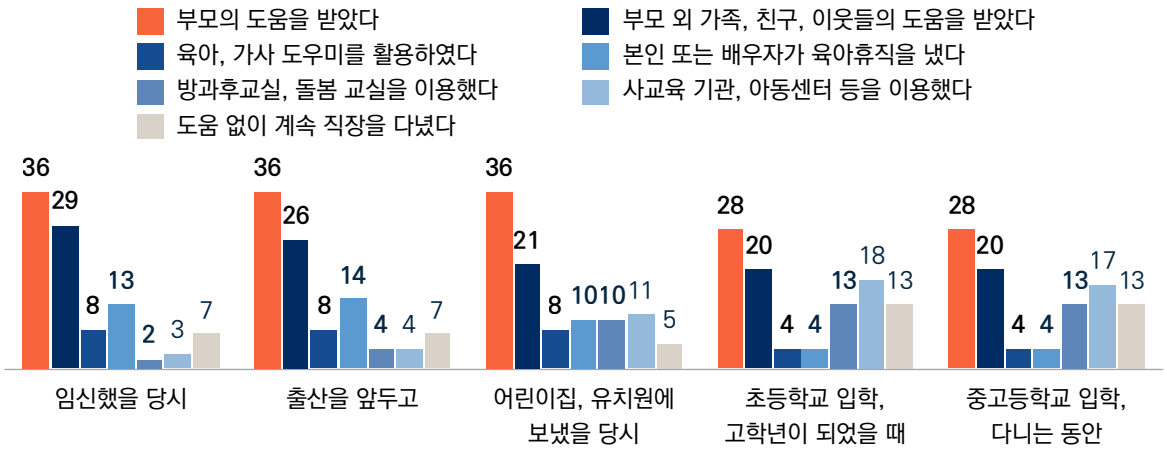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 퇴사를 고민했을 때 극복했던 방법, '부모님이 도와주셨다!'

- 임신했을 때, 출산 때, 어린이집/유치원 보낼 때, 자녀가 초등학교/중고교 다닐 때, 자녀의 모든 성장 과정에서 퇴사를 고민했을 때 극복했던 방법으로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퇴사를 고민했던 시기의 극복 방법(각 시기별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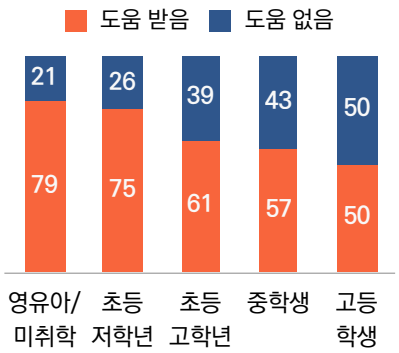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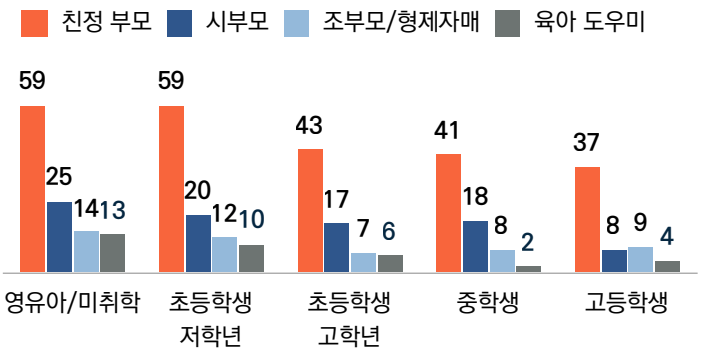
● 가정생활을 도와주시는 분, '친정 부모'가 절대적!

- 가정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자녀가 초등학생 때는 60%가 넘는 비율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자녀가 고등학생 때에도 절반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받는 비율은 자녀 연령이 올라가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 그럼, 누가 가정생활을 도와주는지 질문했는데, '친정 부모'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가정생활에 도움을 받는 여부 (%)



[그림] 가정생활을 도와주는 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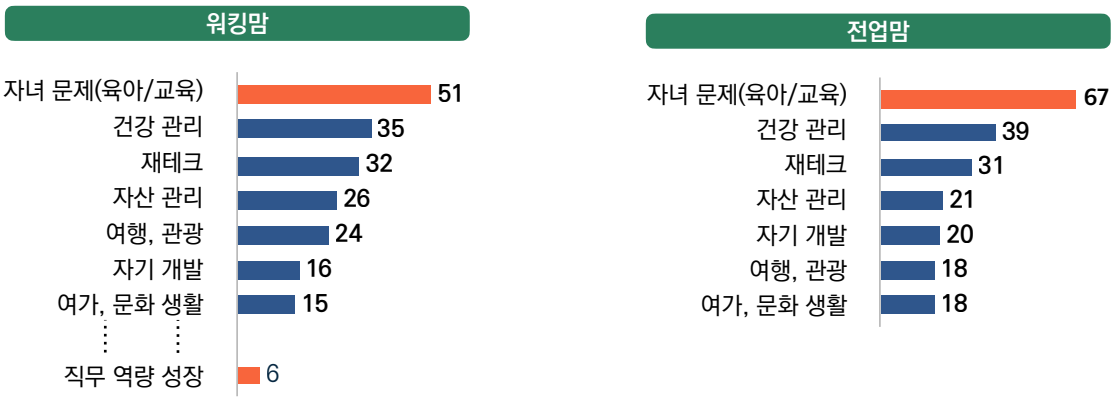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4

워킹맘의 평소 관심사항 1위, '자녀 문제'(육아/교육)

- 워킹맘의 평소 관심사항은 '자녀 문제'가 51%로 절반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건강 관리' 35%, '재테크' 32%, '자산 관리'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인의 직업과 관련 '직무 역량 성장'은 6%로 미미했다
- 반면 전업맘(전업주부)의 경우 자녀 문제 관심도가 67%로 워킹맘(51%)보다 더 높았다.

[그림] 워킹맘/전업맘의 평소 관심 사항(상위 7위,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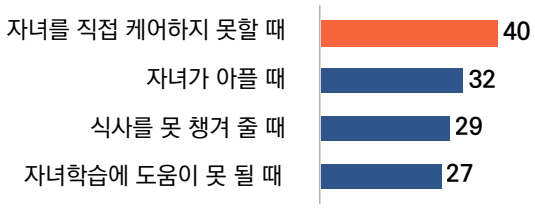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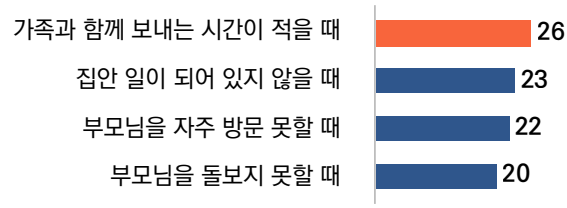
● 자녀에게 가장 미안함을 느낄 때 1위, '자녀를 직접 케어하지 못할 때'

- 워킹맘이 일하면서 자녀에게 가장 미안할 때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자녀를 직접 케어하지 못할 때'가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가 아플 때' 32%, '식사를 못챙겨 줄 때' 29%, '자녀학습에 도움이 못될 때' 27% 등으로 응답해, 일하는 엄마들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다.
- 가족에게 미안할 때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을 때' 26%, '집안 일이 되어 있지 않을 때' 23%, '부모님을 자주 방문 못할 때'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자녀에게 가장 미안함을 느낄 때(중복 응답) (%)



[그림] 가족에게 가장 미안함을 느낄 때(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대처 방법, '본인/배우자가 휴가를 낸다'

-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질문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가를 내고 반드시 가는 편'이라는 응답이 자녀의 전 학령층에서 50%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대처 방법 (%)

	영유아/미취학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휴가를 내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반드시 가는 편	55	55	59	62	53
시간이 될 때만 가고, 부모/형제자매/도우미 등에게 요청	30	31	25	16	15
대부분 부모, 형제자매, 육아도우미 등께 우선 요청	12	10	8	9	7
보육/교육기관 교사에게 맡기는 편	2	2	2	2	3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	1	1	-	-	-
자녀 혼자 병원에 보냄	-	1	7	1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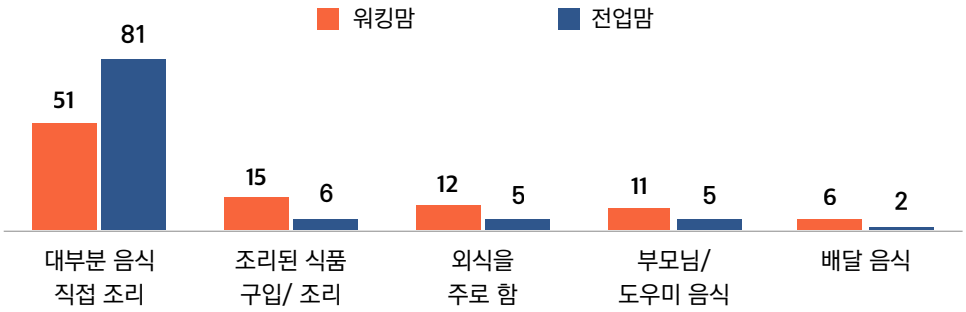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5

가족 식사 때 직접 조리,
‘워킹맘’ 51%, ‘전업맘’ 81%

- 가족식사 준비 관련, 워킹맘과 전업맘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직접 조리 비율이 워킹맘 51%, 전업맘이 81%로 두 그룹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워킹맘의 경우 가족 식사 때 절 반 정도만 직접 조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워킹맘의 경우, 가족 외식, 부모님/도우미 음식, 배달음식, 조리된 음식 구입 이용률이 전업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가족 식사 준비 방법(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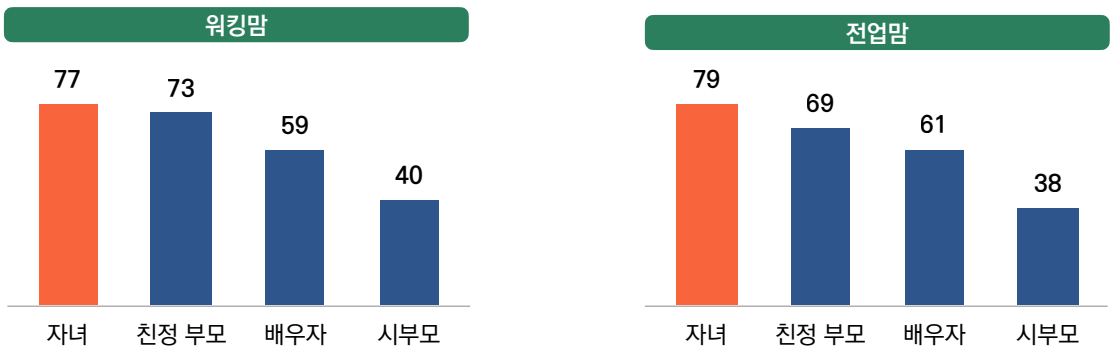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6

워킹맘,
자녀 만족도 최고, 시부모 만족도 최저!

- 워킹맘은 자녀와 관계 만족도가 전체 가족 중에서 가장 높으며, 시부모와 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다. 이는 전업맘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림] 가족 관계 만족도(워킹맘 vs 전업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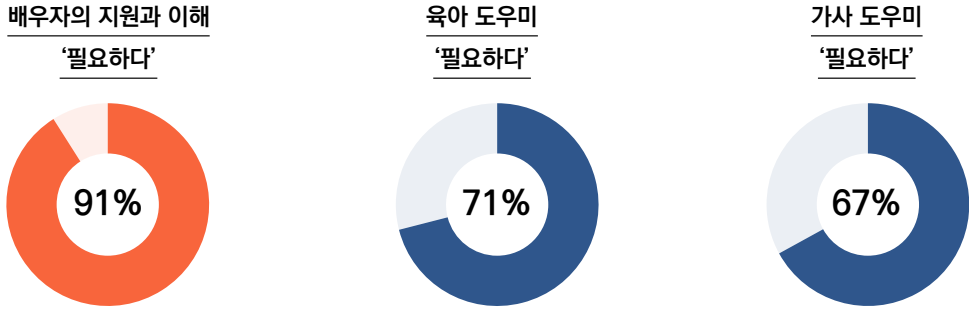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 가족 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여기서는 만족도(매우+약간)만 표시하였음

7

워킹맘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우자 지원과 이해 '필요하다' 91%

- 워킹맘에게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위해 가정내 지원사항 중 3가지에 대해 필요성을 질문했는데, '배우자의 지원과 이해'에 대해 91%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배우자의 지원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육아를 도와주는 육아도우미 필요성은 71%, 음식, 청소 등 가사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 필요성은 67%로 각각 응답됐다.

[그림]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가정내 필요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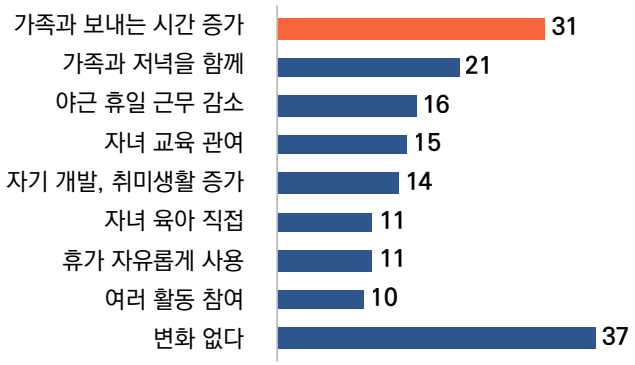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1점(필요하지 않다)~7점(매우 필요하다) 까지 7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필요하다'(5+6+7점) 응답률임

● 주 52시간 제도, 워킹맘들에게 가정생활 관여도 높이는 긍정적 효과!

- 실제로 워킹맘들은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가족과 저녁식사를 같이하고, 자녀 육아나 자녀 교육 관여도가 더욱 높아져, 주 52시간 제도가 워킹맘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 52시간 제도 도입에 따른 생활 변화(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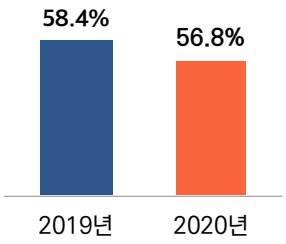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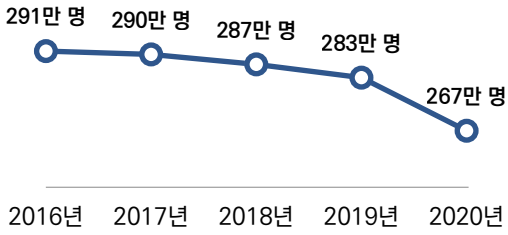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영향,
전국의 워킹맘 1년 사이 16만 명 감소!

- 통계청의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 자료(2020.12.14.)에 의하면, 우리나라 15~54세 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2020년 56.8%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성년 자녀를 둔 엄마 중 절반 이상이 일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앞에서 언급한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2020년 경제활동 비율(56.8%)은 2019년 58.4%보다 1.6% 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워킹맘 감소 현상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지난 1년 사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16만 명 감소).

[그림]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



[그림]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 중 경제활동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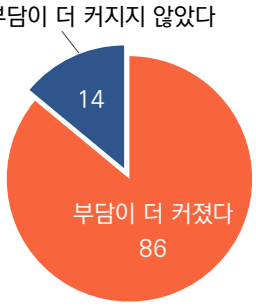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 2020.12.04.
** 자료 출처 : 중앙일보, "워킹맘 더 어려워졌다... 1년새 15만 6000명 역대 최대 감소", 2020.12.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37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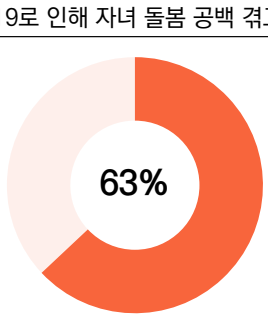
● 워킹맘/대디의 63%, '코로나19로 자녀 돌봄 공백 겪고 있다!'

-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 3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는 비율이 무려 86%나 되었다.
- 부담감이 커진 이유로는 '휴원과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어서' 56%,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지도가 어려워서' 33%,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잦아져서' 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또 응답자의 63%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자녀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일과 육아 병행 부담감 변화 (워킹맘/대디) (%)



[그림] 코로나19의 자녀 돌봄 영향(워킹맘/대디) (%)



*자료 출처 : 구인구직사람인, '코로나 시대의 일과 육아 병행조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 361명 조사), 동아일보 '워킹맘,대디 63% 코로나19로 자녀 돌봄 공백상태', 2021.03.31(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31/106167028/1)

● 코로나19로 인해, 어린 자녀를 키우는 30대 저임금 워킹맘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워킹맘들은 도소매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30대 여성층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임금수준별 2019년 대비 2020년 워킹맘 변동 현황 (천 명)

	전체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200~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2019년	2,290	235	757	675	325	298
2020년	2,170	182	669	683	323	312
증감	-120	**-53**	**-88**	+8	-2	+14

*자료 출처 : 통계청,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 2020.12.04.

[표] 연령별 2019년 대비 2020년 워킹맘 변동 현황 (천 명)

	2019년	2020년	증감
전체	2,827	2,672	-156
15~29세	91	64	-27
30~39세	1,095	988	**-107**
40~49세	1,487	1,459	-28
50~59세	154	161	+7

*자료 출처 : 통계청,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 2020.12.04.

시사점

2020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이른바 워킹맘의 비율이 57%로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었다(10쪽).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워킹맘은 일반화되어 있다.

워킹맘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사 문제에서는 완전한 분담을 못하고 있다. 남편만 취업한 외벌이 가구에서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인 5시간 41분이었는데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내가 3시간 7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워킹맘이 전업맘보다 2시간 34분 더 적게 집안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 모두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각각 54분과 53분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3쪽).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든 만큼 남편이 가사노동을 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워킹맘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든 것은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6쪽) 음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고 조리된 식품을 구입하거나 외식을 하는 등으로 편의적 생활 방식을 채택(8쪽)하기 때문이지 남편이 아내의 줄어든 가사노동만큼을 더 하기 때문은 아니다. 심지어 아내만 취업한 가정에서도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편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는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워킹맘들은 특히 자녀 문제에서는 거의 혼자 부담을 떠 안고 있다. 거의 모든 워킹맘들은 자녀를 직접 케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큰 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7쪽), 심지어 자녀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둘 생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육아와 자녀 돌봄은 워킹맘에게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이들은 직장생활에서 '눈치보며 퇴근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는데(4쪽), 워킹맘이 남들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도 자녀 돌봄을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변화없는 것, 특히 자녀 문제는 여성의 전유 영역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데에 63%가 찬성한 통계청의 조사 결과[1]와 상반된 결과이다.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당위적인 인식과 실제적인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성이 가정 일을 하는 것을 '아내를 돕는다'고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사노동은 아내를 '돕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일을 서로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보이지도 않던 여성을 사회의 전면으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교회가 했는데, 실질적인 가사 분담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워킹맘들은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유아보육 및 교육 기관에서 부실 급식을 하거나 학대를 하는 사건이 종종 보도되면서 워킹맘들은 자녀를 맡겨 놓기는 하지만 불안한 마음과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이 부분에서 워킹맘의 어려움을 줄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저출산에 따른 유아 및 어린이 숫자가 줄어 들면서 많은 교회가 선교원, 유치원, 어린이집 문을 닫았지만 교회가 공익 기여의 관점에서 교회 예산을 늘려서라도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및 교육기관을 유지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 특히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워킹맘이 출근하면서 직장 인근 교회에 자녀를 맡기고, 퇴근할 때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한다면 워킹맘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

1)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 11. 18(전국 18,543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7,750명,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및 인터넷 조사, 2020. 5. 13 ~ 5. 28)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악인과 착한 사람에 대한 국민 인식〉
   우리 국민 4명 중 3명,
   우리 사회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다!'
2. 〈신혼 부부 통계〉
   결혼 5년차 신혼부부, 5쌍 중 1쌍 '자녀 없다'
3. 〈어버이날 선물〉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2위, '따뜻한 말 한마디'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악인과 착한 사람에 대한 국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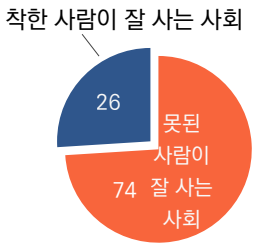
최근 빈센조(tvN), 모범택시(SBS) 등의 TV드라마가 인기가 높은데, 이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악인 또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따른 국민 비난과 분노 감정 등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중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해 사법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데, 이에 우리 국민의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가 있어 소개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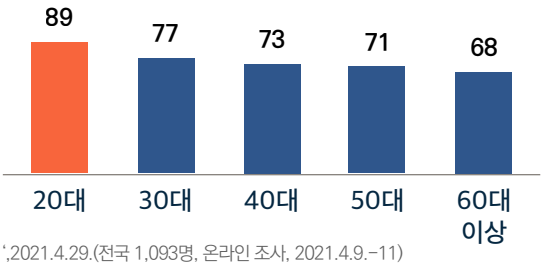
우리 국민 4명 중 3명,
우리 사회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다!'

- 우리 국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사회가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인지,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인지 질문하였다.
- 그 결과, 국민의 74%는 우리 사회가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라고 응답한 반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에는 26%만 응답했다.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오히려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못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라는 인식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라는 인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20대 연령층의 경우 89%의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평소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림]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다' '그렇다' 응답률(연령별)



*자료 출처 : 케이스탯코리아, '사회적 보상/처벌'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2021.4.29.(전국 1,093명, 온라인 조사, 2021.4.9.-11)

● '우리 사회는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사회다' 40%

-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공동체에 기여한 사람은 '보상'을 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은 '처벌'을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에 기여한 사람과 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
- 그 결과 공동체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사회다' 56%, '인정하지 않는 사회다' 44%로 나타나, 공동체 기여자에 대해 인정하는 사회 인식이 높으나, 10명 중 4명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고 응답해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번에는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사회의 대응을 물어보았는데, '비난하는 사회다' 60%, '비난하지 않는 사회다' 40%로 비난하는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는데, 공동체에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불신감이 10명 중 4명이나 되었다.

[그림] 공동체 기여자와 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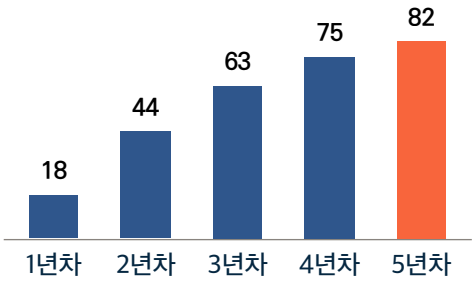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케이스탯코리아, '사회적 보상/처벌'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2021.4.29.(전국 1,093명, 온라인 조사, 2021.4.9.-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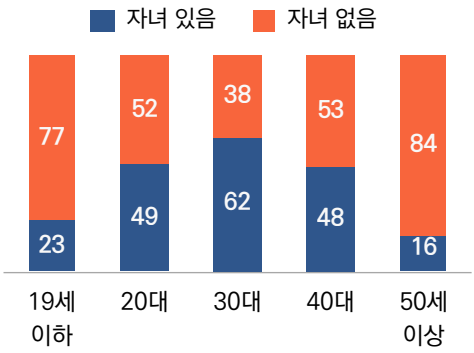
결혼 5년차 신혼부부, **5쌍 중 1쌍 '자녀 없다'**

- 2019년 11월 1일 기준, 5년간 혼인 신고한 부부 중 국내 거주하고 있는 126만 쌍을 대상으로 유자녀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결혼 '1년차'가 18%에 불과한 반면, '5년차'가 되면 82%까지 상승하고 있다.
- 반면 결혼 5년차 부부 5쌍 중 1쌍(18%)은 자녀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혼부부의 아내 연령이 40대 이후가 되면 급격히 무자녀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혼인 연차별 유자녀 비율 (%)



[그림] 아내 연령별 자녀 유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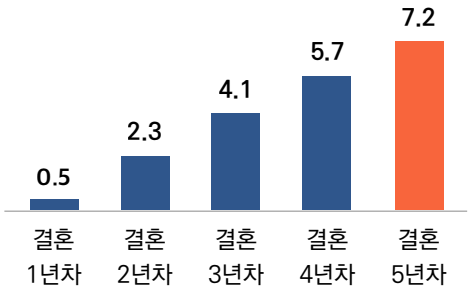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0.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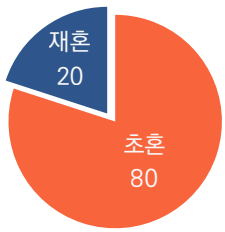
● 신혼부부의 이혼율, 결혼 1년차 0.5% → 결혼 5년차 7.2%까지 상승

- 결혼 5년차까지의 신혼부부 연차별 이혼율을 살펴 보면, 이혼 여부를 분석한 결과, 결혼 1년차에는 0.5%가 이혼하였는데, 5년차까지 가면 7.2%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결혼한 신혼부부 중 초혼은 80%, 재혼은 20%로 나타났다.
-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 동거 여부를 보면, 초혼은 12%, 재혼은 19%가 별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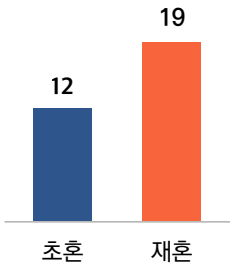
[그림] 신혼부부(혼인 후 5년간) 결혼 연차별 이혼율 (%)



[그림] 신혼부부 유형 (%)



[그림] 신혼부부 별거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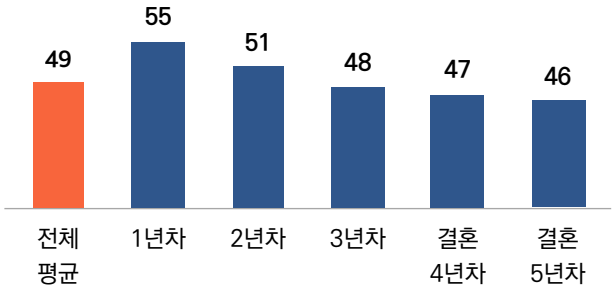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0.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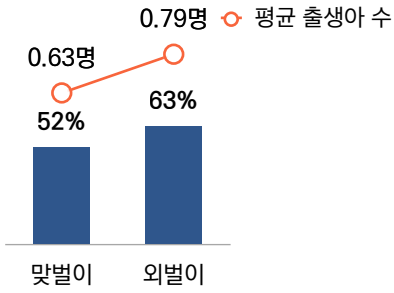
● 맞벌이 부부보다 외벌이 부부가 유자녀 비율이 더 높다!

- 결혼 5년차까지의 신혼부부의 전체 평균 '맞벌이' 비율은 49%로 2쌍 중 1쌍이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 3년차 까지는 '맞벌이' 비율이 더 높으나, 5년차부터 역전되어 외벌이가 더 높은 비율을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 맞벌이 부부보다는 외벌이 부부가 '유자녀' 비율이 높고, '평균 출생아 수'도 많은 특성을 보인다.

[그림] 신혼부부 맞벌이 비율 (%)



[그림] 신혼부부 유형별 유자녀 비율 및 평균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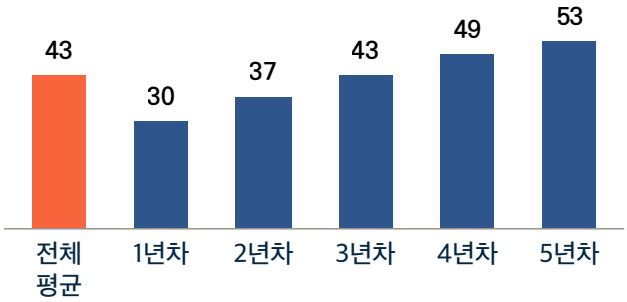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0.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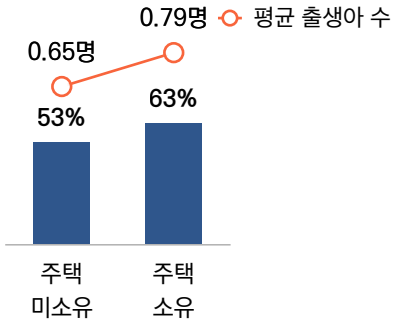
● 유주택 부부가 무주택 부부보다 유자녀 비율이 더 높다!

- 결혼 5년차까지 신혼부부의 유주택 비율은 53%로 나타났다.
- 유주택 부부가 무주택 부부보다 유자녀 비율이 높고, 평균 출생아 수도 많은 특성을 보인다.

[그림] 신혼부부 유주택 비율 (%)



[그림] 주택 소유 여부별 유자녀 비율 및 평균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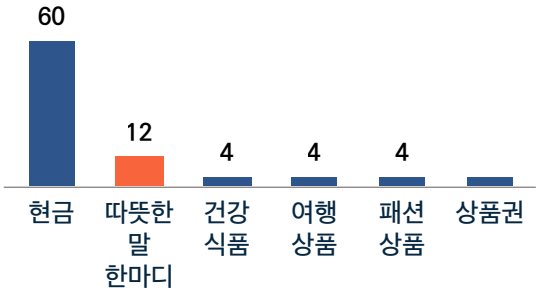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0.12.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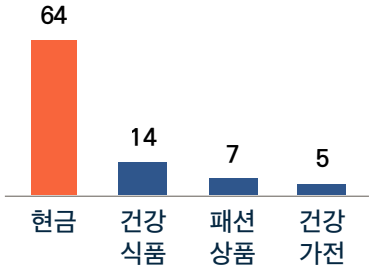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2위, **‘따뜻한 말 한마디’**

- 온라인쇼핑몰 티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한 결과, ‘현금’(60%)이 1위였고, 다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12%로 2위를 차지했다.
- 주고 싶은 선물 역시 ‘현금’이 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식품’ 14%, ‘패션상품’ 7%, ‘건강 가전’ 5% 순이었다.

[그림]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상위 6위) (%)



[그림] 어버이날 주고 싶은 선물(상위 4위) (%)



*자료 출처 : 티몬 ‘어버이날 선물 조사’, 고객 700명, 온라인조사, 2021.04.27~3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지표조사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국내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시계를 맞추어 놓고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넘버즈에서는 이번 주부터 다음 두 곳에서 발표하는 정치지표 자료를 언론보도 기사 큐레이션 파트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46호(2021년 5월 1주)
-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27호 (2021년 5월 1주)
- 중도 33% 최다… 진보는 26% 탄핵 이후 최저 (조선일보_2021.05.04.)

일반사회

- 응급실서 확인한 '조용한 학살'…20대 여성 자살 시도 34% 늘었다
  한겨레_2021.05.03.
- 절박한 2030의 '반란'…시장 질서가 흔들린다
  연합뉴스_2021.05.04.
- 청춘들의 '대출 돌려막기'…3곳이상 빚진 20대 다중채무자 급증
  매일경제_2021.05.03.
- 6070 노후자금까지 '코인 한탕' 가세했다
  매일경제_2021.05.02.
- 주식 투자자 43% "코로나 이후 시작"… 92% "계속할 것"
  한국일보_2021.05.06.
- 코로나19 백신 '맞겠다' 3월 68% --〉 4월 61%
  연합뉴스_2021.05.05.
- '한국의 40대' 44%가 무주택…월소득 468만원에 자산 4억
  동아일보_2021.05.04.
- 직업계高 취업률 3년새 반토막… "오라는 곳 없어 군대 가야할 판"
  동아일보_2021.05.06.
- 한국, 유럽보다 도시권역에 4배 많은 인구가 밀집, 유럽보다 대도시화 심각
  한겨레_2021.05.0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환경

세계 CO_2 배출량 10%가 의류산업…'노쇼핑족' 뜬다
한겨레_2021.05.03.

도시와 미세먼지⓪ 전 지역에서 10년 간 WHO 기준 초과
MBN_2021.05.05.

도시와 미세먼지① 최초공개! 전국 주요 도시 '미세먼지-질병 밀접 지도'
MBN_2021.05.05.

도시와 미세먼지② "젊을수록 미세먼지에 건강 좌우된다고?"
MBN_2021.05.05.

기타

초·중·고교생 57% "코로나 위험해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파"
경향신문_2021.05.04.

"한국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코로나 위기 속 경제 버팀목"
연합뉴스_2021.05.05.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 31만명 발육부진…5명 중 1명꼴
연합뉴스_2021.05.05.

기독교

다문화 선교, 귀국 후 관리 중요하다
기독신문_2021.04.26.

[중·고등학생 종교 영향도·미래 인식 조사] 청소년 40% "온라인 예배 집중 안 돼"
기독신문_2021.04.26.

넘버즈 칼럼

코로나 이후로 대면예배에 돌아오지 않은 두 그룹

Thom Rainer (LifeWay Christian Resources) CEO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인들이 모두 대면예배로 돌아오기를 정말로 보고 싶다. 그들이 정말 그립다." 그의 이런 말은 요즘 자주 묻는 질문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교회는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인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정상'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뉴노멀이 올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60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메모로 정리해 보았다. 60개의 대화가 대표성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화 내용을 정리하면, 대면예배로 돌아오지 않은 가장 큰 두 그룹이 있다. 이 두 그룹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일관되게 언급한 내용이다.

노인

나와 이야기를 나눈 목회자들은 노인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 65세 이상, 70세 이상 그리고 75세 이상. 가장 크게 공통된 그룹은 70세 이상이었다. 이 노인 세대가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은 코로나의 위험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예방 접종을 받지 못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일반적으로 자녀가 학교 교실로 돌아간 경우 자녀를 직접 교회에 데리고 올 확률이 높다. 그러나 자녀가 학령기보다 어리면 교회학교에 데리고 가길 주저한다. 일반적으로 가족 전체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 돌아오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는 그룹은 돌아오지 않은 노인만큼 많지는 않다. 두 그룹의 조합은 교회에서 상당한 숫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인가?

좋은 소식은 어느 시점에서 코로나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백신과 자연 면역을 통해 종식될 것이다. 그러나 도전적인 것은 이러한 낙오자들 중 상당수가 교회에 전혀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 출석을 포함한 모든 훈련은 습관을 통해 발전한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습관에서 벗어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에 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과 계속해서 연락할 수 있다. 간단한 연락만으로도 먼 길을 갈 수 있다. 새로운 온라인 성경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직접 만나는 경험만큼 좋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연락을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목양할 수 있다. 기도 사역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돌아오지 않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시오.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하십시오.

지금은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계속 역사하는 한 큰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Churchleaders.com에 게재된 "The Two Largest Groups Who Have Not Returned to In-Person Worship Since COVID"을 문화선교연구원에서 번역한 글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횃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 (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롱, 김주형,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호, 이영선, 이완종, 이인성, 이정규, , 이주일,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권순창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 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 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횃불회